금리인상·신용위험 돌파 카드는 '디지털 혁신·리스크 관리'

2019 금융권 수장 신년사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글로벌 디지털뱅크에 도전해야"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
"디지털 마케팅 도약 원년 될 것"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직)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

경제가 어려워 질 것에 대비해 금융권 수장들은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아 '디지털 혁신'과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다. 정부의 가계대출규제로 수익 성장세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비은행 부문 강화를 통한 수익 창출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도한 금리인상은 가계와 기업에 이자부담으로 작용해 신용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어서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1일 신년사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강력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여파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기준금리가 인상돼도 순이자마진(NIM) 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기업 라인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뱅크 사업을 시도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위기의 순간을 디지털 혁신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헤쳐나가겠다는 설명이다.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은 "앞으로 매년 1조원 이상의 손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하고 각 분야에서 한 단계씩 도약하는 '지속성장 1+ 경영'을 통해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농협은행 디지털 마케팅 도약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하자고 강조했다.윤 회장은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비해 선제적인 리스크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우량산업 위주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면서 "'본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핵심 계열사의 업권 내 톱티어(Top-Tier) 지위를 유지,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겸직하는 손태승 우리은행장도 리스크 관리와 인수합병(M&A)을 통한 비은행부문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손 행장은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와 유동성 관리를 기본으로, 자산관리·글로벌·CIB 등 새로운 성장동력 강화에 주력하면서 대면·비대면 융·복합 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성장성을 이어가고, 지주사 전환을 계기로 시너지 창출에 집중해 수익구조를 탄탄하게 다져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채용비리, 수장의 비도덕적 행태 등으로 신뢰가 추락한 지방금융지주 수장들은 2019년 새해를 맞아 '신뢰회복을 통한 안정화'와 '글로벌 디지털화'를 강조했다. 지역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글로벌 디지털화를 통해 수익을 증가시키겠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5월 취임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은 DGB금융 정상화를 위해 절치부심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등장으로 변화된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관련 조직도 강화했다. 지역경기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에는 수도권으로 영업망을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취임 직후 BNK금융의 체질개선에 초점을 맞췄던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은 2019년 경영진 인사엔 큰 변화를 두지 않고 디지털, 글로벌 부문을 통합·강화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매트릭스 체제 강화로 시너지 강화와 함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3월 취임을 앞둔 김기홍 JB금융 회장 내정자도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에 지속된 수도권 확잔 전략을 유지할 계획"이라면서 "광주은행 전북은행 거점인 광주전북 기반을 확고히 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혁신 발목잡는 금융감독 행태 개선"

최종구 금융위원장
"자율·창의 제약 낡은규제 버리고 디지털시대 적합한 프레임 필요"

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위기 경계·위험관리에 만전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해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업계의 기해년(己亥年)은 내실을 다지되, 신성장 동력을 찾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중요한 해가 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는 낡은 규제 틀은 버리고 디지털 혁명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며 "암묵적 규제, 보신적 업무처리, 과중한 검사·제재 등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기가 언제라도 그 모습을 달리해 찾아올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잠재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리스크 요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원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사 종합검사제를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또 한 번 의견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장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경쟁환경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금융산업의 미래 전략을 세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각자가 근본을 강화하고 내실을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과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보험산업의 생존에 대해 고민하며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신 회장은 "오늘의 난관을 극복하고 내일의 활로를 찾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했고 김 회장은 "단순한 변화가 아닌 '완전한 변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은 "지난해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개편안으로 사업 불투명성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에 놓였다"고 평가하며 "여전사가 공동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팀 코리아(Team Korea)의 리더로서 정책금융기관, 상업금융기관과 함께 자금을 충분히 지원해 '금융 때문에 수주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며 "'고객과 우산을 함께 쓰는' 진정한 정책금융 기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새해 기술혁신 기업의 창업과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핵심 정책 분야 보증을 확대하겠다"며 "또 정부의 혁신적 포용 국가 구현에 앞장서기 위해 사회적 기업과 금융 취약 기업에 대한 포용적 금융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우리 사회는 저출산·초고령화, 양극화, 경제성장·성장동력 저하, 청년실업 등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로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캠코가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한층 강화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을 위한 선도적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주 기자 hj89@